



제 93 회

11月 9日,

- ... 본회가 주최한 제93...○
- ... 회 발명교실이 지난...○
- ... 11월 9일 발명장려관...○
- ... 연구실에서 개최됐다...○
- ... 매일 둘째 토요일 오...○
- ... 후 1시간 30분에 개...○
- ... 최되는 발명교실은...○
- ... 이 달에도 1백여 명...○
- ... 이 참석하여 상황을...○
- ... 이루었다. 이날 발명...○
- ... 교실에서는 성진엔지...○
- ... 너어링 김규성 석재...○

석재필터와 그 제조방법 발명가 성진엔지니어링 김규성 석재필터사업부장

17년을 돌가루와 함께 살아 온 김규성 부장은 대기공해, 수질공해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발명품을 만들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가 그토록 오랜 세월을 통해 만들어 낸 것이 바로 석재필터와 그의 제조방법인데 자연을 이용하여 온갖 폐기물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 보내는 공해 추방 발명품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김부장이 발명을 시작하게 된 첫번째 동기는 쓸모없는

것들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가벼운 착상에서부터였다.

그중에서도 지천으로 깔린 돌맹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돌가루를 가지고 이리저리 연구를 하던 김부장은 우연히 TV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보도를 듣고 무릎을 치며 기뻐했다.

그것은 다름아닌 한강의 오염과 폐수의 문제였다.

「우리가 흔히 약수 중의 약수로 꼽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바위틈에서 솟아나는 석수가 가장 깨끗한 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김부장은 돌가루를 통한 자연 여과가 가장 깨끗한 물을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맹이 가루를 이용하여 여과 장치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 많은 돌맹이 가루를 접착하여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기존의 접착제나 시멘트로 접착을 하면 물을 통과시킬 수 없었고 단순히 몽쳐 놓기만 하면 쉽게 허물어져 버리기 때문에 김부장은 스스로 접착제를 만들기로 작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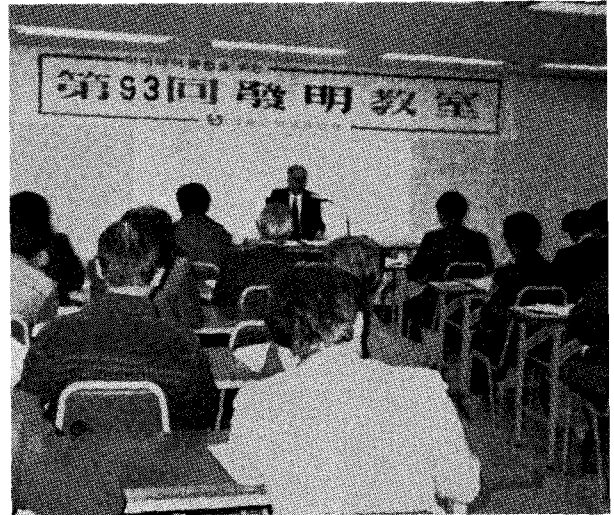
수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결국 특수한 약품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한 김부장.

흙이나 돌맹이는 서로 결합력이 없기 때문에 서로를 연결해 줄 고리가 필요한데 그

發明教室

成功事例 登發表

- 필터사업부장의 성공 ○
- 사례 발표에 이어 김 ○
- 勳衛 본회 상근 이사 ○
- 의 「발명의 침술과 ○
- 사업에 대한 강의와 ○
- 勳衛日 반려사의 「삼 ○
- 인재산권제도」에 대 ○
- 한 강의와 토론이 있 ○
- 었다. 발명가의 성공 ○
- 사례를 간추려 소개 ○
- 한다. <柳泰珠 記> ○



고리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김부장이 발명한 특수 약품이 것이다.

개발에 성공한 김부장은 우선 폐수여과 장치에 손을 댔다.

「폐수를 정화하는 데에 쓰이는 여과 장치가 쉽게 고장이 나는 원인은 폐수 속에서 서식하는 푸른 이끼같은 것이 여과 장치의 기공을 막기 때문입니다. 이 석재필터를 이용, 새롭게 여과 장치를 구성하여 몇 군데 시공을 했는데 반응이 좋더군요」.

김부장의 새로운 폐수여과 시스템은 물을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여 걸러 주는 기존의 여과 장치가 아니라 수압을 이용해 밑에서 위로 여과시키고, 석재 필터를 지나기 전에 계속적인 산소 공급을 시키는 장치로 구성되었다.

김부장의 발명품은 우리에게 깨끗한 물만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다.

모든 자동차에는 에어 크리너가 있는데 이는 종이 종류의 필터로서, 걸러주는 역할 즉 여과가 미흡하며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만 차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석재필터로 교체해 주었을 때에는 폐차시까지 교체해 줄 필요가 없이 공기를 깨끗하게 걸러주어 엔진을 보호하고 대기오염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번 쓰고 버리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여과장치의 폐기물 처리도 순식간에 해결된다.

시제품을 만들어 실험해 본 결과 성공을 자부한 김부장은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제35545호)을 받고 서둘러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석재필터의 시장성이 넓고 그 뛰어난 성능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자 김부장은 경영의 전문가와 개발의

전문가가 합작하는 형태의 회사를 만들게 되었다.

「주문은 계속 밀려드는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본과 경영능력이 부족한 저로서는 새로운 기업 형태를 모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성진 엔지니어링이죠」.

많은 발명품들이 사장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김부장이 취한 기업형태는 음미해 볼 만한 일인듯 싶다.

경험과 취미에서 시작하여 자연을 이용한 발명과 인류를 위한 상품을 만들어 내고도 아직도 만족을 못하고 다시 연구개발을 시작한 김부장의 모습에서는 어떤 발명품을 만들더라도 자연과 인류를 위한 제품일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